

CJ올리브영, 24일까지 '클린뷰티 기획전'

CJ올리브영이 24일까지 전국 매장 및 공식 온라인몰에서 '클린뷰티 기획전'을 진행한다. 클린뷰티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한 화장품을 말한다. 순한 성분의 크림, 에센스, 클렌징, 선크어 등 클린뷰티 50여 개를 선별해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또 '올리브영 클린뷰티'를 자체 선정해 고객이 클린뷰티를 쉽게 경험하도록 했다.

정정욱 기자



비즈 포커스 | 코로나19가 바꾼 시중은행 하반기 경영전략

디지털·비대면 강화...효율성 제고에 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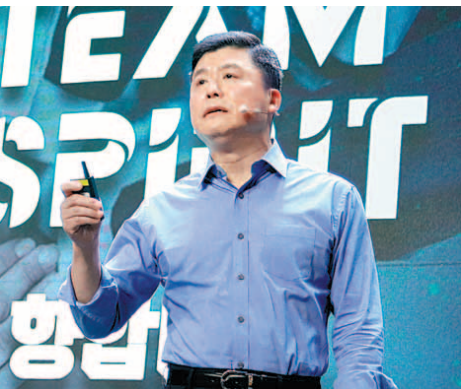
글로벌 진출 막히자 내수 다지기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관리 재편
비용절감·새 수익원 창출에 매진
우량자산 증대 등 리스크 관리도

시중은행들의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로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대면 정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새 수익원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상반기에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중시했다면 하반기에는 디지털과 비대면으로 중심축이 옮겨진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영전략 키워드가 상반기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하반기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강화'로 전환됐다. 1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권광석 우리은행장.



사진제공 | 신한은행·우리은행

17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한은행의 '2020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주제는 'CHANCE TO CHANGE(변화의 기회)'였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 중심으로의 변화를 미래를 위한 기회로 가져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디지털 기반 고객관리, 대면제일 전략 및 창구체계

변화를 주요 아젠다로 정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디지털 중심의 금융산업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비대면으로 '2020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연 우리은행은 하반기

4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 뉴노멀(새 기준) 경영,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현재의 위기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 비대면과 디지털로 대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KB금융이 비대면으로 진행한 '하반기 그룹 경영진 e-워크숍'으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대신한 KB국민은행도 핵심 경쟁력, 비대면, 지속가능경영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이달 중 '2020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하나은행은 비대면 중심의 고객 접점 확장,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한 우량자산 증대, 비이자 사업 기반 확대 및 다양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담을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경제현장.jpg



“판교힐링카페서 여름 휴가 즐겨요”

현대백화점이 8월 9일까지 판교점 10층 토평스홀에서 '판교힐링카페'를 운영한다. '리조트존', '감성캠핑존', '비디오아트존' 등 총 5가지 여름 휴양지 콘셉트의 휴식공간으로 구성했다. 행사장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5층과 9층 식당가에서는 '판교 비어 페스타'를 열고 오후 5시 이후 맥주 한 잔 주문 시 한 잔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기아차, 코드42와 맞손...모빌리티 전문기업 '퍼플엠' 설립

전기차 기반 'e-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유모스' 활용
450억 규모 투자 유치...성장성 기대

기아자동차가 모빌리티 전문기업 '퍼플엠(Purple M)'을 설립하고 코드42(CODE 42)와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에 나선다.

퍼플엠은 전기차 기반의 고객 맞춤형 'e-모빌리티(electric-Mobility)'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아차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전담 법인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퍼플엠은 코드42의 기술력이 집약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유모스(UMOS, Urban Mobility Operating System)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모스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딜리버리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이용해 카셰어링(Car Hailing,



송호성 기아차 사장(왼쪽)과 송창현 코드42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기아차는 전기차 기반의 고객 맞춤형 e-모빌리티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퍼플엠을 설립하고 코드42와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에 나선다.

사진제공 | 기아차

차량 호출)과 카셰어링(Car Sharing, 차량 공유), 수요응답형 택시(On demand taxi), 스마트 물류,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등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다. 기아차의 풍부한 사업 기반과 코드42의 독보적 IT 기술력이 결합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사회 의장은 코드42 송창현 대표가 맡는다. 코드42는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의 송창현 대표가 지난해 초 설립한 자율주행 TaaS(aTaaS: autonomous t

ransportation-as-a-service) 기업이다.

설립 당시 국내외 IT기업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담당하던 핵심 연구 인력들이 대거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전략적 협업을 위한 현대차의 시드(seed) 투자, 기아차의 리드(lead) 투자, S·K·LG·CJ 등 대기업이 참여한 Pre A 라운드서 300억 원, 최근 LG넥스원·KT·B·네트워킹·신한은행으로부터 브릿지(Bridge) 투자로 150억 원을 유치하며 총 4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퍼플엠 CEO에는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 '풀러스' 대표 출신 서영우 씨가 임명됐다. 서영우 대표는 풍부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퍼플엠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은 "새로 설립된 퍼플엠을 중심으로 기아차는 미래 e-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플레이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하나銀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출범

하나은행이 서울 강남 소재 클럽1PB센터 내에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출범(사진)했다.

기존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확대했으며 신박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통합 자산관리를 담당한다. 개인과 기업의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와 상속설계를 추구한다. 고객의 세무와 법률에 대한 자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상속과 리모빌리티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고령자의 시니어주거신탁 및 후견, 미성년과 장애인에 위한 복지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내놓았다.

정정욱 기자



쌍용차 'E100' 티저 이미지.

쌍용차, 첫 순수전기차 'E100' 티저 공개
국내 최초 준중형 전기 SUV...내년 상반기 출시

쌍용자동차가 최초의 순수 전기차(EV) 'E100'의 티저 이미지를 20일 공개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처음 출시되는 준중형 전기 SUV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모델이다.

쌍용차는 본격적인 패밀리카로 손색없는 거주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국내 최초의 준중형 SUV 전기차라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체 디자인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소재 적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대담한 양감을 기본으로 공기역학을 반영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해 어반 드라이빙(urban driving)에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추구했다. 경량화와 무게중심 최적화를 위해 쌍용차 최초로 알루미늄 후드(엔진룸 덮개)를 적용했으며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로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렸다.

또한 차체 디자인에 유체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상어 지느러미와 비늘(shark riblet) 형상을 활용하는 등 자연에서 검증된 환경적응사례를 차용하는 생체모방공학(biomimetics)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도 신선하다. 'E100'은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신한카드-세브란스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MOU

신한카드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신한카드의 생활결제플랫폼 신한페이판 앱과 연세의료원의 의료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6월 신한페이판 앱에서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마이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대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내 10개 병원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리 기자 mythuki@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장마철 걸리기 쉬운 '식중독', 식품 조리·보관시 위생 주의해야...

습한 장마철은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식중독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컫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계절별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444명 중 91%에 달하는 9508명의 환자가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 육류 등이었으며 발생 장소로는 학교급식소(60%)가 가장 많았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복통, 구토, 설사, 발열, 구역질, 두통 등이 동반되는 증상을 보인다.

가장 흔한 식중독의 원인은 '포도상구균'이다. 상하거나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할 때 감염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섭취 후 3~4시간 후부터 복통과 설사를 동반한다. 소나 돼지 등 내장에 서식하는 'O-157균'은 상한 음식을 먹은 후 2~3일 후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

가족 대소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시거나 오염된 물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이질균'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전염성 강한 식중독으로 점액성 혈변을 동반한 설사와 구토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한 닭고기나

달걀, 우유 섭취 후 나타나는 식중독은 주로 '살모넬라균'에 기인하며 고열과 복통이 심한 설사가 2~3일 발생한다.

생선회, 굴, 조개 등을 날것으로 섭취한 후 발생하는 식중독은 '비브리오균'이 원인이다. 음식을 먹은 후 10~18시간 뒤 고열을 동반한 복통과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소고기, 닭고기, 어패류, 달걀 등 음식이 상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테리아균'은 치사율이 높고 균이 고온에서 잘 견디므로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주로 집단 급식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짙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는 습관을 생활화하며 곰팡이가 생기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즉시 버려야 한다. 세균

은 냉장고 안에서도 번식하므로 냉장고나 냉동고를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손에 상처가 났을 때에 육류나 어패류는 반드시 비닐장갑을 끼고 조리해야 한다. 조리구구는 열탕이나 일광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조리하지 않은 고기와 생선은 다른 식품과 닿지 않도록 한다.

식중독은 대부분 음식물로 섭취한 유해 미생물과 화학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면 며칠 이내로 완치되지만 유아나 임산부,

노인, 환자는 탈수로 인한 건강 장애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과에 내원해 적극적으로 치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현성 청라 다정한내과 원장